

# 海外直接投資의 效果에 관한 考察

金 承 堧

(本院 專門研究員)

---

\* 필자는 이 글의 초고에 대하여 귀중한 논평을 주신 本院의 林源赫 박사, 東國大學校의 宋毅英 교수, 그리고 本院의 원내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분들의 의견은 본고의 보완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本院의 韓震熙 박사께 감사드린다. 또한 자료 및 원고정리에 수고한 金壽一 연구원과 金信德 연구조원께도 감사드린다.

◇ 要 約 ◇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며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I. 序 論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이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부족한 데에 기인한다. 본고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 접근을 시도하며 향후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전망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다룰 주요 논제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국내투자,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하는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우려의 기본적 가정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국내투자,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가? 2) 산업공동화론은 타당한가? 3) 해외직접투자의 전략변화에 따른 수출 및 고용효과는? 4) 향후 정책의 기본방향은?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에 대한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III장에서는 산업공동화론의 논점 및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IV장은 해외직접투자의 전략변화에 따른 수출 및 고용효과를 전망하며, V장에서는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II. 海外直接投資의 效果

### 1. 海外直接投資의 諸效果

#### 가. 國內投資

다국적기업의 차입비용이 차입정도에 비례하여 증가할 때, 국내투자와 해외투자<sup>1)</sup>는 대체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은 상대적으로 썩 내부자금에 대해 경쟁하게 되므로, 해외투자는 국내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국내·해외생산의 보완성은 이러한 효과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대체의 정도는 실증적 문제이다. 미국[Stevens(1969), Ladenson(1972), Severn(1972), Stevens and Lipsey(1992)]의 경우 미국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에 약간의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McClain(1974)]과 네덜란드[Belderbos(1992)]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스웨덴의 경우, 1986년까지 해외투자를 국내에서 자금조달하는 데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의 정도는 낮았다. 1986년 이후 해외투자는 급증했는데, 아직도 1990년대 초의 국내투자의 부진이, 부분적으로 1980년대 후반의 해외투자 성황으로 인한 스웨덴 다국적기업의 높은 채무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1) 본고에서 해외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나. 輸出·輸入 및 雇傭

역사적으로 제조업체는 해외투자를 하기 전에 무역을 했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역이 해외투자보다 쉽고 덜 위험하며, 해외투자는 유치국에 대한 지식, 경험, 관리 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해외투자는 최소한의 규모가 요구되기 때문에 수출은 시장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선행된다. 또한 통신발전 이전에는 모기업의 해외자회사 관리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기업이 상표, 우월한 기술, 고급제품 공급능력 등을 갖추고 있을 때 해외투자 여부는 수출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무역장벽, 과점시장에서의 경쟁, 생산비 및 운송비용 절감, 시장과 고객에의 근접 등이 해외투자로의 이행을 가져온다. 이는 해외투자가 수출의 대체수단임을 의미한다. 한 제품에서 보면 해외투자는 수출을 대체한다. 하지만 해외투자는 중간재와 서비스의 수출을 가져온다. 해외투자는 시장점유(market share)를 증가시켜 수출증가 효과를 확대한다. 한편 해외투자는 역수입의 증가를 초래한다. 해외투자와 무역의 관계는 다국적기업의 전략이 변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다. 기존의 연구는 해외투자의 수출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표 1>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대체로 해외투자가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1차산업은 산업특성상 제조업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무역이 해외투자로 이어지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ies)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고 해외투자는 나중에 하게 된다. 반면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해외투자가 필요하다. 즉, 해외투자가 무역으로 이어져 유치국은 수출하고 투자국은 수입하게 된다.

많은 비재생자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부분의 해외투자는 무역을 확대시킨다. 투자국 입장에서 해외투자가 수입을 유발하며, 농업·광업설비 등 제품(manufactures)의 수출도 유발한다. Pearce(1990)에 의하면 이 부분의 해외투자의 수출증가효과는 제조업의 해외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부분의 해외투자는 주로 서비스의 비교역적(non-

<표 1> 해외투자의 수출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주요내용	비 고
Bergsten et al. (1978)	미국의 해외투자와 수출의 관계가 (+)이며 해외투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관계가 약해짐.	해외투자 초기에는 해외자회사가 모기업의 중간재 수출에 의존하지만 현지 활동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의존도가 감소함.
Lipsey & Weiss (1981)	해외생산이 그 국가로의 미국 수출을 증가시킴. 타국의 그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는데 이는 해외투자가 시장점유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나타냄.	
Lipsey & Weiss (1984)	미국의 경우 1970년에 해외투자와 수출이 5개지역, 11개산업(14개산업중)에서 (+)관계를 가짐.	수출의 구성이 최종재에서 중간재로 변화함.
Swedenborg (1979, 1985)	스웨덴의 경우 해외자회사의 생산과 모기업의 수출이 (+)관계임.	
Blomstrom et al. (1988)	해외투자와 수출의 (+)관계는 미국보다 스웨덴의 경우에 보다 뚜렷했음.	
Pearce(1990)	세계 거대기업의 경우 1982년도에 해외생산과 수출이 (+)관계임.	수출의 구성이 최종재에서 중간재로 변화함.

tradable),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인 특성 때문에 이루어진다. 비록 서비스의 교역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일반적 특성은 수출보다는 해외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많은 서비스기업은 본국 기업의 국제활동을 돕기 위한 해외투자로 시작했다. 무역회사, 은행 등은 국내기업의 무역활동 및 해외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follow-the-customer” 동기는 광고·회계회사의 해외 진출에도 적용된다. 서비스부문의 해외투자는 소유권우위를 살려서 새로운 시장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은행업, 광고, 항공운송, 보험, 호텔 등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서비스부문의 해외투자는 자원이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할 경우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호텔 서비스, 공항설비 등이 그것이다. 서비스부문의 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가 교역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교역가능하지 않다면 효과가 거의 없다. 하지만 보험, 재보험, 금융, 법률서비스 등과 같이 교역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외투자가 서비스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서비스부문의 해외투자는 기계와 장비의 수출을 유발하나 제조업부문의 해외투자보다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작다. 한편 무역업에서의 해외투자는 본래 목적상 수출을 촉진한다.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 효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해외생산이 수출을 대체하고 역수입을 증가시켜 국내고용을 감소시킨다. 반면에 해외자회사가 모기업 또는 본국으로부터 원자재, 자본재, 중간재, 최종재 등을 수입하여 국내고용을 창출한다. 그리고 해외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본사의 혁신, 관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 활동이 증가한다. 또한 회계, 자문, 은행 등 해외자회사에 지원서비스를 하는 부문의 고용변화가 나타난다. 이 효과는 지원업체가 고객(customer)을 따라서 해외로 진출하

면 음(-)일 수도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실증 분석에서 해외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각적인 고용상실은 모기업의 경쟁력 향상, 모기업의 해외자회사로의 수출증가 등으로 인한 고용증가로 보완되었다. 한편 Jordan & Vahlne(1981), Hawkins & Jedel(1975)에 의하면 해외투자가 고용의 질에 변화를 가져온다. 투자국의 고용상실은 생산관련이고 고용창출은 숙련직, 전문직, 관리직이다. 이는 해외투자가 생산시설을 이전시키는 반면에 국내에는 관리, 판매, R&D를 집중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Magee(1979)는 다국적기업의 고용상실이 비다국적기업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즉, 고용상실은 국제시장에서 수출국의 경쟁력이 감소하는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해외투자와 수출·고용의 양(+)의 관계를 뒷받침하지만 최근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다국적기업의 국내생산과 해외생산간에 보완관계에서 대체관계로 변화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스웨덴 다국적기업의 수출부진, 기업내 무역의 특성변화, 다국적기업의 국내고용 감소와 해외고용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외고용 증가와 국내고용 감소는 화학, 전자, 운송과 같은 현대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스웨덴의 경우 EU에서의 지역 통합에 대해 다국적기업이 생산 패턴을 재조정할 결과), 본국과 세계의 구조변화 관점에서 다국적기업의 전략이 변하는 것인지는 완전히 판단하기 힘들다. 다만, 스웨덴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과 확장이 심층통합전략에 따른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국적기업의 본사보다 자회사에서의 수출 및 R&D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기업조직구조의 재편성, 다국적기업 해



〈표 2〉 해외투자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주요내용	비 고
Emergency Committee on America(1972)	1960년대의 미국 해외투자는 고용을 증대시켰는데 이는 수출촉진, 본사고용촉진효과에 기인함.	74개의 제조업 다국적 기업에 대한 Survey
Stobaugh et al. (1976)	미국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내 고용을 창출함.	Case study data 이용
Rutenberg(1971)	1960년대 미국 해외투자는 고용 손실을 초래함. 하지만, 본사고용효과 및 지원업체 고용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음.	
Hawkins(1972)	가상적 상황에 대한 가정에 따라 미국 해외투자의 순고용 효과는 (-)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음. 산업별로 다름.	
Kujawa(1980)	1973~78년간 미국 다국적기업의 고용은 증가했으나 비다국적기업의 경우 고용이 감소했음.	
Stopford(1979)	1970년대 초에 영국 다국적기업은 비다국적기업에 비해 고용을 더 많이 증가시키거나 덜 감소시켰음.	118대 영국 다국적기업 연구
Shepherd et al. (1985)	해외투자는 단기적으로 영국의 수출감소를 초래했으나 장기적으로 해외투자와 국내고용은 보완적임.	22대 영국 다국적기업 분석
Van den Bulcke & Halsberghe (1979)	1970년대 벨기에의 해외투자는 고용대체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고용효과를 가져왔음.	
Jordan & Vahlne (1981)	스웨덴의 경우 해외투자가 단기적으로 대체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에 (+)효과를 줌.	2개의 다국적기업 연구
Koshiro(1982)	일본의 해외투자는 일정의 고용감소를 가져왔으나 부품, 자본재의 수출과 새로운 고부가제품의 수출증가로 인한 고용창출이 이를 상쇄함. 해외투자로 고용의 질이 개선됨.	

외자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한 노동분업, 기능적 책임의 이전 등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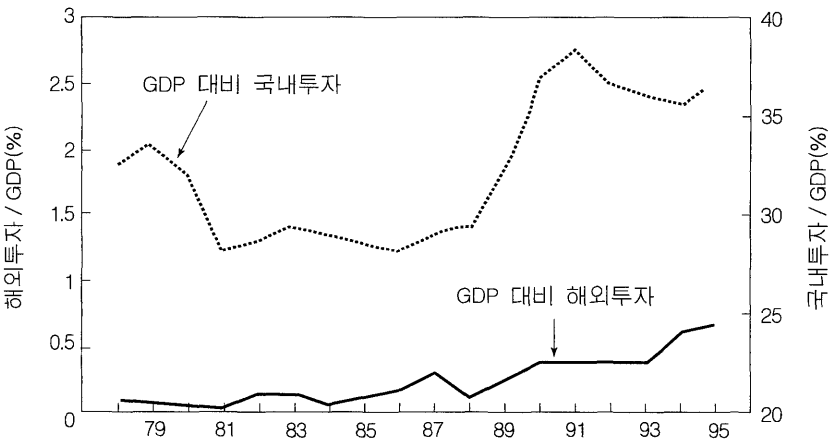
## 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國內投資 및 輸出·輸入

### 가. 海外直接投資와 國內投資

1978년부터 1995년까지의 해외투자 및 국내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가 대체적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을 보면 해외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부터 1990년까지 국내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반의 불황기에는 해외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내투자는 하강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모두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해외투자와 국내투자의 추이가 대체적인 면을 보이지 않는 것은 기업의 이윤증가 또는 투자

[그림 1] GDP 대비 해외투자와 국내투자의 추이(1978~95)



주 : 국내투자는 국내고정투자로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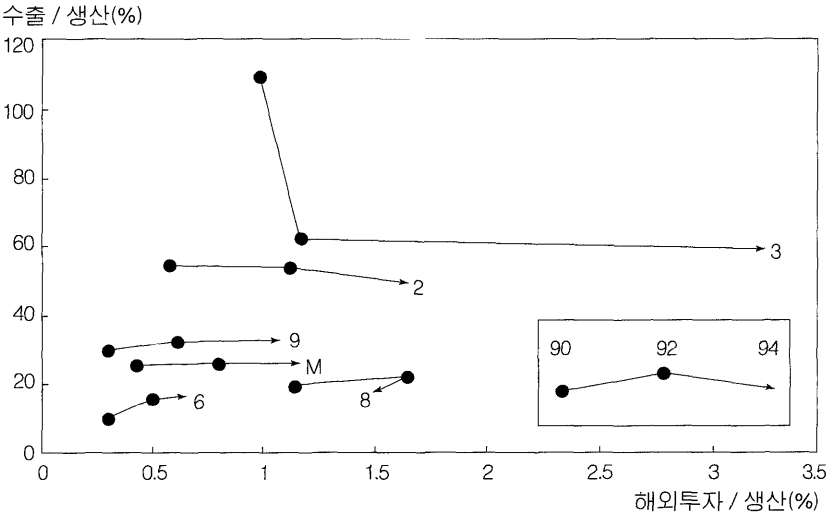
재원의 증가가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미친 순효과가 음(-)이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적어도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투자 자금의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조달되고 해외투자의 규모가 국내투자에 비해 매우 작으며 해외투자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海外直接投資와 輸出·輸入

1) 業種別 海外直接投資와 輸出·輸入

업종별 해외투자와 수출의 추이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국내생산규

[그림 2] 업종별 생산규모 대비 해외투자와 수출의 추이(1990, 1992,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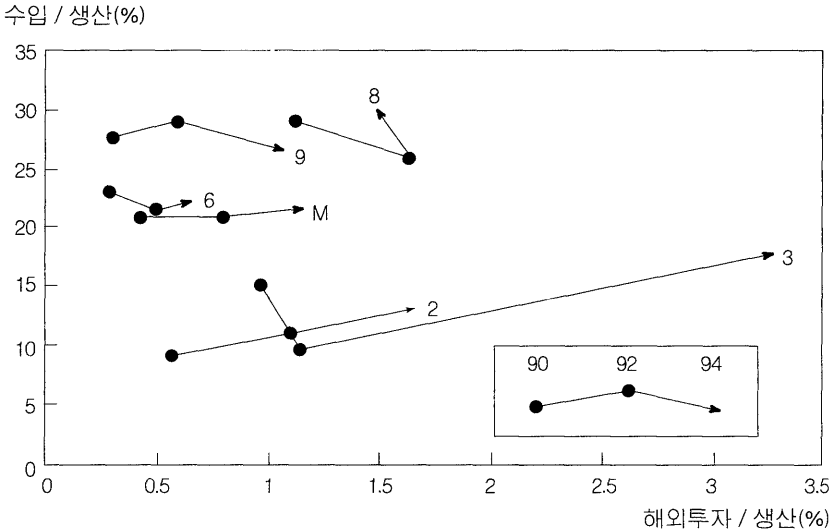
주: 2: 섬유·의복, 3: 신발·가죽, 6: 석유·화학, 8: 1차금속, 9: 조립금속·기계장비, M: 제조업 전체.

모 대비 해외투자와 수출의 추이는 대체적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두 변수의 단순한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해외투자의 증가가 수출을 감소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섬유·의복, 신발·가죽업종에서는 생산규모에 대비한 해외투자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수출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석유·화학,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 업종의 경우 해외투자와 수출 모두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1992~94년의 기간에도 1차금속의 수출과 해외투자 모두가 감소하는 추세를 제외하면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업종별로 수출과 해외투자의 추이가 상이한데 이의 해석에는 주의가 요한다.

섬유·의복 및 신발·가죽의 경우 해외투자가 수출을 감소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오히려 이 부문에서의 비교우위 상실로 수출이 감소하고 해외투자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투자는 수출을 증가시켰을 수도 있는데 이의 검증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조립금속·기계장비의 경우에도 해외투자와 수출의 증가추세가 해외투자가 수출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 부문의 경쟁우위 증가가 해외투자와 수출 모두를 증가시킨 주요 요인일 수도 있다. 해외투자와 수입에 관해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전체의 경우 생산규모 대비 해외투자와 수입이 모두 증가했다. 섬유·의복 및 신발·가죽업종에서는 해외투자와 수입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외투자가 수입에 미친 효과가 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외투자와 수출 및 수입은 유사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외투자의 수출 및 수입효과는 작을 가능성이 있다.

1994년 기준으로 업종별 생산규모 대비 해외투자와 수출, 해외

[그림 3] 업종별 생산규모 대비 해외투자와 수입의 추이(1990, 1992, 1994)



주 : [그림 2]와 동일.

투자와 수입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이 해외투자와 수출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해외투자와 수입은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를 보였다.

<표 3> 각 업종의 생산규모 대비 수출입과 해외투자의 상관관계 (1994)

	상관관계
수출/생산, 해외투자/생산	0.78 <sup>1)</sup>
수입/생산, 해외투자/생산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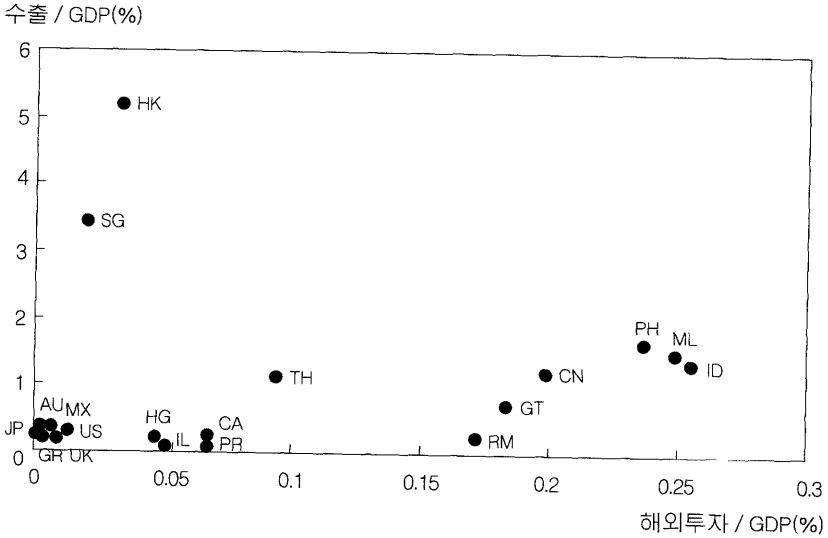
주 : 1) 1% 수준에서 유의함.

2) 관측 업종의 수는 10개임(N=10). 해외투자 업종은 10개로만 구분되기 때문에 수출입 및 생산을 10개업종으로 재구분하였음.

## 2) 對象國家別 海外直接投資와 輸出·輸入

대상국가별 해외투자와 수출의 관계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는 대상국의 GDP 대비 한국의 해외투자와 수

[그림 4] 주요국가별 GDP 대비 해외투자과 수출(1994)



- 주 : 1) JP : 일본, AU : 호주, GR : 독일, US : 미국, UK : 영국, MX : 멕시코, HK : 홍콩, SG : 싱가포르, IL : 아일랜드, HG : 헝가리, CA : 캐나다, PR : 포르투갈, TH : 태국, CN : 중국, RM : 루마니아, GT : 과테말라, PH : 필리핀, ID : 인도네시아, ML : 말레이시아.  
 2) GDP는 대상국의 GDP, 수출 및 해외투자는 대상국으로의 수출 및 해외투자를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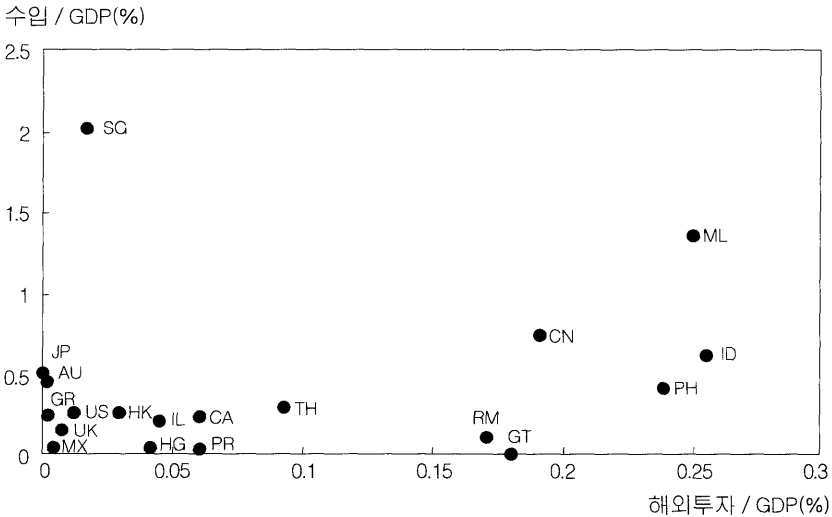
출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양(+)의 관계에 가까워 보인다. 단, 홍콩과 싱가포르는 중개무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인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표 4>와 같이 양(+)의 관계를 보이며 유의하다. 이는 해외투자를 많이 했던 국가에 수출도 많이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해외투자가 수출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외투자과 수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의해 양(+)의 관계가 나타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상국가별 해외투자과 수입의 관계도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의 관계에 가까운데 실제로 상관관계도 양(+)의 관계를 보인다.

〈표 4〉 대상국의 GDP 대비 한국의 수출입과 해외투자의 상관관계 (1994)

	상관관계
수출/GDP, 해외투자/GDP	0.38 <sup>1)</sup>
수입/GDP, 해외투자/GDP	0.32 <sup>2)</sup>

- 주 : 1) 1% 수준에서 유의함.  
 2) 5% 수준에서 유의함.  
 3) GDP는 대상국의 GDP, 수출 및 해외투자는 대상국으로의 수출 및 해외투자, 수입은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가리킴.  
 4) 관측 국가의 수는 57개임(N=57). 1994년 기준 해외투자, 수출입 및 GDP에 대한 통계가 이용가능한 57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음.  
 5)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해외투자와 수출·수입의 상관관계가 0.40, 0.34로 각각 높아짐.

[그림 5] 주요국가별 GDP 대비 해외투자와 수입(1994)



- 주 : 1) [그림 4]와 동일.  
 2) GDP는 대상국의 GDP, 해외투자는 대상국으로의 해외투자, 수입은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가리킴.

다. 海外直接投資와 輸出의 關係에 대한 計量分析

해외투자와 수출의 관계에 대한 계량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표 1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투자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해외투자의 수출효과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몇몇 연구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친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친 효과를 전통적인 수출방정식을 사용하여 계량분석할 예정이다.

### 1) 輸出方程式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출방정식은 설명변수로 GDP와 1인당 GDP를 포함한다. EC의 회원국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dummy) 변수도 포함한다. 따라서 수출방정식은  $EX_{ij}=f(GDP_j, GDPC_j, EC_j)$ 의 형태를 갖는다.  $EX_{ij}$ 는 1994년의  $i$ 업종의  $j$ 국가로의 수출을 나타내고,  $GDP_j$ 와  $GDPC_j$ 는  $j$ 국의 1994년 GDP와 1인당 GDP를 각각 나타내며,  $EC_j$ 는 EC회원국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sup>3)</sup> EC회원국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을 포함한다.

GDP의 계수는 양(+)일 것으로 예상된다. GDP는 시장규모를 반영하며 수출대상국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GDPC의 계수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에 따라 양(+)일 수도 음(-)일 수도 있다. 수요의 높은 소득탄력성은 GDP가 일정한 경우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높은 수요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GDPC는 양(+)의 계수를 갖는다. 낮은 소득탄력성은 반대로 음(-)의 계수를 갖는다. EC의 계수는 음(-)일 것으로 예상된다. EC라는 무역블록은 이들 국가로의 수출에 방해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변수외에도 본국과

2) 김준동(1994)은 해외투자와 수출간에 보완성이 있음을 횡단면·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였다.

3) 199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한 이유는 관련변수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연도 중 1994년이 가장 최근연도였기 때문이다.



수출국과의 거리, 관세수준, 각종 수입장벽 등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본 분석에서는 생략되었다.

## 2) 海外投資의 輸出效果分析

위에서 상정한 수출방정식에 해외투자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따라서 추정하려는 수출방정식은  $EX_{ij}=f(GDP_j, GDPC_j, EC_j, FDI_{ij})$ 이다. 해외투자의 계수는 해외투자의 수출대체효과와 수출유발효과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양(+)일 수도 음(-)일 수도 있다.<sup>4)</sup>

[부록]의 <표 A-1>에 의하면 국가별로만 추정한 것과 국가별·업종별로 추정한 것이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해외투자의 계수는 모두 양(+)이며 유의(significant)하다. GDP의 계수와 EC의 계수도 예상한 대로 각각 양(+)과 음(-)이다. 단, GDPC는 유의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의 수출효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였을 때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표 A-2>를 보면 해외투자의 수출효과가 선진국의 경우 양(+)이지만 유의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양(+)이면서 유의하다. 업종별 해외투자의 수출효과는 <표 A-3>에서 보는 것처럼 섬유·의복, 신발·가죽, 석유·화학, 비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의 경우 양(+)이며 유의하다. 음식료품, 1차금속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해외투자의 수출효과가 음(-)이지만 유의하지는 않다. 노동집약업종 對 수출확대업종의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섬유·의복, 신발·가죽 등 수출비중이 감소추세에 있는 노동집약업종의 경우는 해외투자의 수출효과가 양(+)이며

4) 해외투자의 수출유발효과는 同業種뿐만 아니라 異業種간에도 나타날 수 있음. <표 5>의 국가별 회귀분석은 이러한 효과를 모두 반영할 수 있음.

유의하다. 1차금속, 석유·화학, 조립금속·기계장비 등 수출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는 업종의 경우도 해외투자의 수출효과가 노동집약업종의 경우보다는 작지만 양(+)이며 유의하다. <표 A-4>를 보면, 노동집약업종의 對선진국투자의 수출효과는 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의하지도 않은 반면에 對개발도상국투자는 양(+)이며 유의하다. 노동집약업종의 對개발도상국투자가 탈출이라는 인식하에 동 업종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동 업종의 수출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수출확대업종의 對개발도상국투자의 수출효과는 양(+)이며 유의한 반면에 對선진국투자는 양(+)이지만 유의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sup>5)</sup>

이상의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해외투자는 대체로 수출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투자의 수출증대효과가 미미하나, 적어도 일부 우려와는 달리 해외투자의 수출감소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량분석의 결과는 해외투자와 수출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생략가능성 때문에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대상국의 소득 및 1인당 소득을 포함시켜 이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해외투자의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나, 해외투자와 수출 모두에 영향을 주는 기타 설명변수가 생략되어 해외투자의 효과로 나타날 위험은 상존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의 수준이 아닌 수출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미설명변수, 즉 해외투자와 수출 모두에 영향을 주나 생략된 변수가 수출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미설명변수의 효과는 초기의 수출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수출의 변화를 초기의 수출, 해외투자의 변화, 소득 변

5) 11% 수준에서 유의하다.

화에 연결시켜 다음의 식을 추정하기로 한다.<sup>6)</sup>

$$\Delta EX_{ij} = f(\Delta GDP_j, EX92, \Delta FDI_{ij})$$

$\Delta EX_{ij}$ 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수출변화,  $\Delta GDP_j$ 는 동 기간의 GDP변화,  $\Delta FDI_{ij}$ 는 동 기간의 해외투자 변화를 각각 나타내며  $EX92$ 는 1992년의 수출을 가리킨다.  $EX92$ 는 설명변수뿐 아니라 미설명변수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역할을 한다.

〈표 5〉 해외투자(1994)와 해외투자 변화분(1992~94)의 계수

	FDI94	$\Delta FDI$
국 가 별	0.32 (5.58)	0.13 (2.21)
국가별·업종별 (업종별 더미변수 사용)	0.24 (4.60)	0.25 (3.73)
선 진 국 (업종별 더미변수 사용)	0.04 (0.58)	-0.02 (-0.21)
개발도상국 (업종별 더미변수 사용)	0.38 (5.51)	0.26 (3.08)
노동집약업종	0.53 (4.69)	0.35 (2.96)
수출확대업종	0.27 (3.22)	0.21 (3.33)
노동집약업종/선 진 국	0.15 (0.88)	0.86 (3.12)
노동집약업종/개발도상국	0.70 (5.44)	0.27 (2.74)
수출확대업종/선 진 국	0.29 (1.69)	-0.03 (-0.34)
수출확대업종/개발도상국	0.31 (3.31)	0.27 (3.37)

6) 이 방법은 Blomstrom, Lipsey and Kulchycky(1988)와 김준동(1994)에서 사용하였다.

〈표 A-5〉를 보면 국가별로만 추정된 결과는 해외투자의 증가와 수출의 증가가 양(+)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초기 수출은 음(-), 소득의 증가는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업종별로 추정된 결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초기 수출의 설명력이 떨어진다. 〈표 A-6〉에 의하면 해외투자의 수출효과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양(+)이며 유의한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음(-)이다. 〈표 A-7〉에 의하면 노동집약업종과 수출확대업종에서는 모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수출확대업종의 경우 해외투자의 수출효과가 노동집약업종의 경우보다 작은 것이 특징이다. 업종별로도 섬유·의복, 신발·가죽, 조립금속·기계장비 등의 경우에 해외투자의 증가는 수출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 A-8〉에 의하면 노동집약업종의 對개발도상국투자, 수출확대업종의 對개발도상국투자의 경우 해외투자의 증가는 수출의 증가를 가져왔다. 수출확대업종의 對선진국투자에는 해외투자가 음(-)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다. 이상의 계량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 3) 結 論

본 연구의 계량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도 해외투자와 수출이 보완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의 진정한 효과는 해외투자가 없거나 제한되었을 때의 기회비용과 비교하여 분석해야 한다. 계량분석이 암시하는 기본적 가정은, 해외투자가 없거나 제한되었을 때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해외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미미하게 한 국가와의 수출에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량분석이 해외투자가 없거나 제한되었을 때의 가상적 상황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계량분석이 생략변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계량분석의 결과, 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양(+ )인 것은 해외투자와 수출 모두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변수의 생략에 기인했을 수 있다. 기업의 제품개발노력, 공격적 경영, 유치국의 개방정책 기조 등이 이러한 변수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해외투자의 양(+ )의 계수를 해외투자가 제한되었을 때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음(- )인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음(- )의 효과가 해외투자와 수출을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변수의 생략에 기인할 수 있다. 상대적 임금의 격차, 무역장벽, 운송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외투자의 음(- )의 계수를 해외투자가 제한되었을 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두 시점의 차분방정식을 추정하는 방법이 생략변수의 영향을 줄여주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계량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해외투자의 수출효과가 실제로 양(+ )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5>의 수출방정식의 국가별 회귀분석 결과, 해외투자의 수출효과는 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해외투자와 수출 모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변수의 생략에 기인했다면, 그 변수는 유치국의 개방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4]를 보면 개방의 정도가 앞선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등)보다 개방의 정도가 뒤진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등)에서 국가별 경제규모를 고려한 해외투자와 수출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치국의 개방정책이 해외투자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표 5>의 수출차분방정식의 국가별 회귀분석 결과는 이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유치국의 개방정책이 2년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면, 유치국의 개방정책이 수출의 변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지적한 계량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투자가 없는 상황에 대한 가정을 통해 해외투자의 효과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sup>7)</sup>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해외투자가 없을 경우 해외생산의 몇%가 국내에 남을 것인가와 해외투자가 어느 정도의 수출축진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가정에 의존한다. 해외투자가 없을 경우에 국내에 남는 부분이 작을수록, 해외투자의 수출축진 정도가 클수록 해외투자가 수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접근은 해외투자가 없는 가상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신뢰성 문제에 직면한다. 가상적 상황의 설정은 투자국과 유치국의 생산비용 차이, 해외투자의 유형, 경쟁자의 반응,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7) Jordan & Vahlne(1981)는 해외투자가 수출 및 고용에 양(+)의 효과를 가져옴을 지적하고, 이는 해외거점이 해외시장 점유를 증가시키고 중간재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기인했음을 강조하였다. 이 결과는 해외자회사 시장 점유의 몇%가 수출에 의해서도 유지될 수 있었는가를 의미하는 수출생존율(export survival rate)에 대한 가정에 의존하는데, 표준화 제품의 경우 생존율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했다. 해외투자는 스웨덴기업의 생존과 국제경쟁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타대안으로는 해외시장점유가 작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tobaugh et al.(1972)는 미국의 9개 기업이 해외투자 없이는 5년 안에 해외시장 전부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존율은 회사 간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이들의 편견이 약점이다. Frank and Freeman(1978)은 미국경제에 대한 모델을 세우고 비용·수익에 대한 데이터에서 생존율을 구했다. 산업별로 생존율이 20~40%에 이르는데, 해외투자가 시장점유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아서 생존율이 실제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해외투자로부터의 수출대체와 축진이 같아지는 생존율("break-even" survival rate)이 11%인데, 실제 생존율이 이를 상회했으므로 해외투자는 미국의 수출 및 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생존율은 시기, 국가, 업종별로 다르며 해외투자 효과도 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Ⅲ. 産業空洞化論의 評價

#### 1. 産業空洞化에 관한 論議

산업공동화란 해외투자로 인해 제조업부문의 생산 또는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해외투자가 활발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국내생산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진작에 제기되었다.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OECD국가들은 제조업의 탈지역화 현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했다. 해외투자 증가와 고용감소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해외투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해외투자가 국내기업의 세계시장점유를 증가시켜 국내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국내에는 숙련노동자의 고용 및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해외투자가 초기에는 국내수출 및 고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나 투자자의 해외시장 침투의 성공에 따라 자본재를 포함한 관련 제품들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투자가 고용감소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가 없었을 때 고용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해외투자가 없었을 경우 해외로부터의 경쟁 심화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고용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투자는 기업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는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투자의 고용감소가 논리적 설득력을 갖기란 매우 어렵다. 이하에

서는 산업공동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를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GDP 對比 海外投資

한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해외투자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해외투자의 효과에 대한 그 국가의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며 산업공동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GDP 대비 해외투자가 작은 국가에서 해외투자의 산업공동화를 논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표 6>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표 6> 주요국별 GDP 대비 직접투자(1994년도 잔액기준)

(단위 : %)

	IFDI/GDP	OFDI/GDP
OECD	14.94	15.53
프랑스	10.68	13.79
독일	6.49	10.04
일본	0.39	6.05
스웨덴	10.75	25.78
영국	20.89	27.42
미국	7.49	9.05
개발도상국	31.10	4.03
중국	18.72	2.84
인도네시아	29.47	0.06
한국	3.16	2.01
말레이시아	45.47	9.07
필리핀	4.63	1.19
싱가포르	85.14	9.99

주 : 1) OFDI : 직접투자 유출, IFDI : 직접투자 유입.

2) OECD국가는 상기 국가외에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룩셈부르크,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를 포함함.

자료 : OFDI와 IFDI는 *World Investment Report*, 1995에서 인용하였음.

GDP(1990)는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에서 인용하였음.

GDP(1994)는 *World Economic Outlook*, February 1996에서 인용하였음.



해외투자가 증가했지만 1994년도 기준 GDP 대비 해외투자 잔액이 10.04%로 OECD 평균수준보다 낮다. 하지만 스웨덴은 1994년도 기준 GDP 대비 해외투자잔액이 25.78%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큰 편에 속한다.

나. 外國人投資 對比 海外投資

외국인투자에 비해 해외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산업공

<표 7> 주요국별 GDP 대비 직접투자(flow기준)

(단위 : %)

	OFDI <sup>1)</sup> /GDP		IFDI <sup>1)</sup> /GDP		(IFDI-OFDI)/GDP	
	80년대	90년대 <sup>2)</sup>	80년대	90년대	80년대	90년대
OECD	1.18	1.85	0.85	1.73	-0.33	-0.13
프랑스	0.84	2.24	0.56	1.42	-0.28	-0.82
독일	0.79	1.25	0.16	0.15	-0.63	-1.10
일본	0.67	0.84	0.02	0.06	-0.67	-0.95
스웨덴	2.35	2.72	0.46	1.54	-1.89	-1.18
영국	3.17	8.69	1.85	5.77	-1.32	-2.92
미국	0.36	0.75	0.82	0.56	0.46	-0.23
개발도상국	0.48	1.55	2.46	3.95	2.11	2.99
중국	0.14	0.58	0.58	2.70	0.45	2.13
인도네시아	n.a.	n.a.	0.40	1.27	n.a.	n.a.
한국	0.18	0.45	0.28	0.30	0.11	-0.16
말레이시아	n.a.	n.a.	3.20	7.70	n.a.	n.a.
필리핀	0.62 <sup>3)</sup>	n.a.	0.55	1.07	-0.92	n.a.
싱가포르	0.96	3.63	9.77	10.63	8.81	7.00

주 : 1) OFDI : FDI 유출, IFDI : FDI 유입.

2) 90년대에 해당되는 연도는 1990년에서 1993년까지임.

3) 0.62는 1980년 1개년도 값임.

4) n.a.는 not available.

5) OECD국가는 상기 국가외에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룩셈부르크,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를 포함함.

자료 : GDP는 World Development Report(1982-1995)에서 인용하였음.

OFDI와 IFDI는 Balance of Payments Yearbook에서 인용하였음.

동화에 대한 우려를 유발한다. 독일의 경우 기업입지의 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해외투자와 너무 적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는 90년대의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독일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초과하여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크게 앞질렀다.

〈표 6〉과 〈표 7〉에 의하면 독일의 1994년도 기준 해외투자잔액이 외국인투자잔액을 초과한 상태이고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순투자유입액(외국인투자액-해외투자액)이 감소했다. 해외투자의 외국인투자 초과현상을 입지경쟁력의 약화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투자의 원인을 국내 입지여건의 약화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해외투자는 국내의 임금, 세금 및 인프라의 차이에 기인하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 시장성장, 시장접근의 요인도 중요하며 세계경제와 기술의 중심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이 되어가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더구나 Dunning의 OLI 패러다임에 의하면 기업의 해외투자는 기술, 마케팅, 노하우 등 기업고유의 경쟁우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증가는 국내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을 반영하며 입지경쟁력의 약화로만 보기에선 무리가 있다. 반면, 외국인투자와 입지여건은 보다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고임금, 규제, 사회간접자본의 우위 퇴색 등을 들 수 있다.

#### 다. 勞動集約的 業種의 低賃金國家에 대한 海外投資

노동집약적 업종의 저임금국가에 대한 해외투자를 기업의 탈

출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국내의 임금을 비롯한 생산비가 너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공동화 우려가 부문적으로는 의복, 신발 등 생산비에 좌우되는 산업, 지역적으로는 저임금국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우려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OECD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저임금국가에 대한 해외투자의 증가는 사실이나 1991년 전체 해외투자의 15%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저임금이 독일의 해외투자에 주요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저임금국가에 대한 해외투자의 상당부분이 비용요인보다는 시장, 조세 등의 요인과 관련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저임금국가와의 경쟁산업에서 이루어진 해외투자는 국내기업의 매출 대비 자회사의 해외매출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이하였다. 신발·가죽에서만 제조업평균에 근접했다. 더구나 전통산업의 해외생산 중 저임금국가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작은 편이다. 섬유·의복의 해외투자에서 저임금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주요 대상국이다. 스웨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스웨덴의 해외투자는 주로 선진국, 특히 유럽으로 향했다. 최근에 개도국 및 동유럽에 대한 해외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미미하다. 운송비, 무역장벽 회피, 수요자에의 접근 등이 해외투자의 주원인이며 자원 및 저임금활용 목적의 해외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저임금국가에 대한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 대체효과를 갖더라도 산업공동화론의 설득력이 약하다. 그런 산업의 국내고용이 해외투자가 없을 경우에 더 나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하청(subcontract)과 같은 대안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탈출론의 가정은 이러한 생산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고용과 해외고용

의 대체관계는 임금을 포함한 국내생산여건이 해외생산여건과 큰 차이가 없을 때 보다 설득력이 있다. 부문별로는 대체관계가 저기술제품 생산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기술제품 생산에서 발생하기 쉽다. 기존의 탈출론은 전통산업과 저임금국가에 초점을 둬으로써 제품과 지역에 대한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탈출론의 초점은 오히려 고기술업종과 생산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가에 대한 투자에 맞추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 라. R&D의 海外移轉

해외투자와 관련한 또 하나의 우려는 R&D의 해외이전이며 이에 따른 생산의 해외이전이다. 최근에 R&D의 세계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R&D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본사가 강하다. 해외 R&D를 탈지역화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해외 R&D는 기업경쟁력을 반영하며 투자기업에게 기술습득 등의 긍정적 영향을 준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고부가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 마. 國內의 生産構造

해외투자의 결과, 국내에는 주로 저부가 생산활동이 남고 고부가 생산활동은 해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무역이론에 의하면 다국적기업내 국제분업은 각 지역의 요소부존에 순응하여 생산의 각 공정은 가장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가 풍부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스웨덴의 비교우위는 목재, 광석 같은 천연자원에 근거해왔고, 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 스웨덴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예 : 종이 및 목재).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국내에는 저기술제품의 생산이 남고 해외에는 고기술제품이 생산될 것이다. 실제로, EC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노동생산

성이 연평균 5.5% 증가했으나(1986~90년) 모기업의 생산성은 하락하였다. 이는 과거에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모기업에서 이루어지고 해외자회사는 단순한 조립기능을 했으나, 최근에는 해외자회사가 몇몇 기술집약적인 부분을 맡고, 모기업은 부가가치 체계상의 낮은 단계에 있는 단순하고 원재료집약적 활동을 하는데 기인한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R&D지출의 4/5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6년 이후 해외자회사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R&D가 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국에서 집중적인 R&D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저기술제품의 수출 비중이 큰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수출이 R&D집약적 제품으로 전환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국적기업이 스웨덴을 고기술제품의 생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R&D의 열매는 해외자회사에서 사용되기 위해 수출되었던 것이다. 이는 스웨덴 특유의 현상으로 자연자원이 풍부한 선진국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패턴은 인적자원과 기술이 풍부한 일본 등의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투자의 결과, 높은 이윤과 외부성이 있는 생산공정이 본국에서 이루어지면 해외투자가 유익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스웨덴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분업에 대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 다국적기업이 국제분업을 계속 안 한다면 현재의 생산량과 시장점유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국내 R&D증가가 국내의 과학·기술능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스웨덴이 잠재적인 R&D 파급 효과로부터 이득을 얻을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 R&D의 해외이전이 가능하고 실제로 다국적기업의 R&D지출에서 해외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6~90년 사이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은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임금이 기타 OECD국가에 비해

낮아서 R&D비용이 작지만(Blomstrom, 1990), 이러한 저임금은 고등교육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R&D인력이 점점 희소해져서 결국 R&D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높은 R&D지출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수출이 고기술제품으로 이전되지 않는 것은 우려의 대상이다. 이는 스웨덴이 R&D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해외자회사로 수출하는 결과를 낳는다.

#### 바. 輸出과 海外投資의 補完性 弱화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인정되었던 수출과 해외투자의 보완성이 약화되는 현상 역시 우려의 대상이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가 약화된다. 이유는 현지조달의 확대, M&A의 증가(M&A된 기업은 본사와의 관계가 약함), 자회사의 제3국 수출증대에 따른 본사 수출대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스웨덴에서 이미 나타난 현상으로 해외자회사간의 분업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해외투자와 국내 생산의 관계가 보완적이었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보완 관계가 대체관계로 변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다국적기업의 국내 고용이 해외투자확대와 함께 감소했다. 스웨덴 해외자회사 중 본사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회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자회사의 수출 증가, 모기업의 수출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 2. 韓國의 産業空洞化論

한국의 경우 1994년 기준 GDP 대비 해외투자잔액이 2%로 매우 적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일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적은 것이다. 하지만 해외투자에 비해 외국인투자가 적다는 것은 우려

할만하다. <표 6>과 <표 7>에 의하면 아직도 외국인투자잔액이 해외투자잔액을 초과하지만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에 비해 빨리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OECD국가 및 주요 아시아국가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해외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해외투자는 소유권우위의 활용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순투자유입(외국인투자-해외투자)의 감소를 입지경쟁력의 약화로만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sup>8)</sup>

<표 8> 주요수출업종의 해외투자지역 분포(1995년말기준, 투자잔액)  
(단위 : 백만달러, %)

	개발도상국 <sup>1)</sup>	선진국 <sup>2)</sup>	기 타 <sup>3)</sup>	총 계
섬유·의복	679.4 (11.3)	50.5 (0.8)	0.2 (0.0)	730.1 (12.1)
신발·가죽	255.0 (4.2)	16.9 (0.3)	0.0 (0.0)	271.9 (4.5)
석유·화학	431.2 (7.2)	87.6 (1.5)	13.1 (0.2)	531.9 (8.9)
1차금속	78.2 (1.3)	464.4 (7.7)	3.4 (0.1)	546.0 (9.1)
조립금속·기계장비	1655.0 (27.5)	1005.3 (16.7)	0.0 (0.0)	2660.3 (44.2)
기 타 <sup>4)</sup>	1044.1 (17.4)	226.7 (3.8)	2.2 (0.0)	1273.0 (21.2)
제조업	4142.8 (68.9)	1851.4 (30.8)	18.9 (0.3)	6013.2 (100.0)

주 : 1) 일본을 제외한 동남아, 중남미, 대양주의 소국, 아프리카, 동·중구권 국가.

2)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선진국.

3) 중동.

4) 음식료품, 가구·목재, 종이·인쇄, 비금속 및 기타제조업.

5) ( ) 안은 제조업 해외투자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8) 김승진(1997)은 한국의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소유권우위의 역할을 지적했다.

〈표 8〉에 의하면 한국의 해외투자 중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8.9%로 매우 크다. 섬유·의복, 신발·가죽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6%이며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이다. 또한 국내생산 대비 해외투자의 기준으로 섬유·의복 및 신발·가죽이 제조업의 평균수준을 초과하여 높은 해외투자 성향을 나타낸다. 저임금국가의 비중이 작고 노동집약업종의 해외투자 성향이 낮은 독일 등의 선진국과 매우 대조적이다.

노동집약적 업종의 탈지역화 및 역수입 증가는 노동집약적 업종의 對개발도상국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투자의 비중은 15.5%에 이른다. 노동집약적 업종의 對개발도상국 투자는 국가간 비교우위 변화로 인한 국제분업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방어적(defensive) 성격이 크다. 기타 종류의 투자는 방어적 성격과 적극적 성격이 혼재한다. 조립금속·기계장비, 1차금속, 석유화학 등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업종의 對개발도상국 투자는 전체의 36%를 차지하는데, 이는 단순한 생산비 절감뿐 아니라 시장점유 확대 및 수요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수직적 통합의 성격이 강하다. 노동집약적 업종의 對선진국투자는 전체의 1.1%를 차지하며 시장확보의 성격이 크다. 조립금속·기계장비, 1차금속, 석유·화학 업종의 對선진국투자는 전체의 25.9%를 차지하는데, 시장점유 확대 및 기술습득 등의 목적뿐 아니라 현지의 인프라를 포함한 생산여건 활용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감소는, 해외투자가 없었을 때에도 기존 시장점유의 상당부분을 수출로 충족할 수 있을 때에 타당성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해외투자의 고용감소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해외투자가 없었을 때, 국내외 생산비용의 큰 격차 때문에 수출로 충족할 수 있는 기존 시장점유의 부분이 작을 경우 고용대체효과는 작을 것이다. 노동집약업종의 對개발



도상국 투자가 전적으로 이에 해당하며, 수출확대업종의 對개발도상국 투자도 이러한 측면을 갖는다. 해외투자가 없었을 때, 경쟁자에 의해 기존 시장점유의 상당부분을 잃을 경우에도 해외투자의 고용대체효과는 작을 것이다. 노동집약적 업종의 對선진국 투자, 수출확대업종의 對개발도상국 투자, 수출확대업종의 對선진국투자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생산여건의 차이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생산여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국가에 대해 행하는 해외투자가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해외투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수출확대업종의 對선진국투자 중에 현지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해외투자가 이러한 성격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해외투자가 실제로 고용감소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해외투자가 억제되었을 경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 억제가 아닌 생산여건의 개선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중저급제품은 해외생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고급제품의 경우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용의 TV, VTR, 냉장고 등은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대형TV, VTR 4Head, 대형냉장고 등의 고급제품은 대체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즉, 고부가제품은 아직까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고기술제품의 국내생산이 불리하지 않거나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 진보된 형태의 해외투자전략 및 관련 능력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R&D의 해외이전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R&D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자회사가 행하는 R&D는 아직 미미하다. 현지생산법인의 R&D지출 및 인력의 비율이 국내기업에 비해 작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연구개발법인의 비중이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의 비중보다 매우 작다.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 또한 아직까지 뚜렷한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보완적인 관계가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률도 타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산업공동화는 아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IV. 海外直接投資 戰略 및 效果의 變化

### 1. 海外投資 戰略의 變化

그동안의 해외투자전략은 독립전략(stand-alone strategies)과 단순통합전략(simple integration strategies)으로 특징지어진다. 독립전략하의 해외자회사는 유치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모기업과의 연계는 주로 소유권을 통한 통제이며 기술이전과 장기자본의 공급도 포함된다. 하지만 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통제는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독립자회사는 생산관련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현지공급자, 하청업자와 실제적 연계를 갖더라도 현지노동자 및 관리자를 채용하고 현지금융과 제3국과의 무역 등을 한다. 개별국가 또는 시장을 담당하는 독립자회사를 두는 다국가전략이 이에 포함된다. 결국 독립자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공급받는 것을 제외하면 모기업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분야에서 현저하며, 제조업 중 유치국이 필요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거나 본국으로부터 재료·부품의 수입이 어렵거나 비쌀 때 나타난다. 현지조달의무를 포함한 무역장벽, 규모경제 이용의 어려움, 국가간 기호의 상이함이

독립전략의 채택에 기여했다. 단순통합전략하에서는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나 하청업자를 통해서 외부조달(outsourcing)할 수 있다. 서비스부문에서도 다국적기업은 데이터 가공 등을 외부조달하기도 한다. 외부조달은 다국적기업의 부가가치 활동의 일정부분에 대해 유치국의 입지적 우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주로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외부조달되는 국제생산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기능의 통합이 필요한데 무역장벽이나 운송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에 효과가 있다. 최근에 국경간 경제거래의 자유화, 정보기술의 확산, 수요패턴의 수렴, 경쟁의 심화 등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해외자회사 및 생산시스템을 지역적, 세계적으로 통합된 생산·분배 네트워크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른바 복합통합전략(complex integration strategies)하에서는 해외생산이 부가가치체계의 어떤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복합통합전략의 채택은 기업이 생산을 가장 유리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 있다. R&D, 금융, 회계 등의 기능적 활동도 가장 유리한 곳에 배치할 수 있다. 여러 선진기업이 벌써 이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Ford 자동차회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Ford 자동차회사는 서유럽에서 생산을 통합하고 전략적 제휴를 구축한 다음 글로벌 전략으로 향하고 있다. 높은 운송비용, 무역장벽 때문에 Ford는 서유럽시장에 자회사 설립(greenfield FDI)으로 진출했다. 1911년에 영국, 1913년에 프랑스, 1920년대에 독일 등으로 진출했는데, 이들 국가에서 Ford의 자회사는 독립적(stand-alone), 다국가적(multi-domestic)으로 활동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Ford의 다국가적 활동(multi-domestic operations)은 서유럽 전체로 확장되었는데 최대 근거지는 독일과 영국이었다. EC 등장후 Ford는 서유럽 내에서 생산을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다국가적 전략은 서유럽대상(Western Europe-wide)전략으로 대체되었다.

Ford of Europe이 1967년에 설립되어 역내의 독립적 자회사의 활동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유럽모델(Europe-wide model)인 Capri의 디자인 및 개발을 통해 제품개발이 통합되었는데 주로 독일-영국간에 이루어졌다. 무역장벽의 감소로 국경간 재화, 부품의 이동이 활발해졌는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서유럽 전역에 걸쳐 제품개발, 부품생산, 최종조립이 통합되었다. Ford는 여러 조립공장 및 부품공장을 세워서 특화와 규모경제의 이점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Ford의 활동은 하청업자 및 공급자를 포함했다. Ford의 모델은 서유럽 특정적이었고 Ford of Europe은 상당한 자율권을 누렸는데 이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독립자회사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1970~80년대에 모기업이 경쟁압력을 받고 있을 때, 유럽의 자회사들은 기업 전체의 수익에 공헌했다. 한편 Ford는 생산통합의 수준을 지역적 수준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시작했다. Ford의 세계차(world car)는 1993년에 유럽에서 Ford Mondeo란 이름으로, 북미에서는 1994년에 Ford Contour와 Mercury Mystique란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양지역의 공장에서 각각 조립된다. 엔진과 변속장치 등의 주요부품은 한 장소에서 생산되어 세계수요에 대응하고 기타부품도 같은 공급자로부터 조달한다. Ford Mondeo는 서유럽 판매는 물론, 동유럽, 일본 및 기타국가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 및 캐나다 시장을 겨냥한다. 세계차의 디자인과 생산은 Ford of Europe에 의해 주도되었다. 제품개발 그룹은 영국 및 독일에 있는데 이는 유럽자회사들이 Mondeo류 중형차(예 : Capri)의 개발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세계차의 개발은 Ford of Europe이 R&D 등에서 기업전체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제품개발그룹의 역할은 자동차의 개발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작업은 유럽과 북미의

여러 지역에서 수행한다. Power steering은 북미에서 개발되었고, 4-실린더엔진은 유럽에서, 6-실린더 엔진은 북미에서, 자동변속장치는 북미에서, 수동변속장치 및 차체엔지니어링은 유럽에서 개발되었다. 디자인은 최종선택 전에 두 지역의 4개 디자인 연구소에서 이루어진다. Ford는 세계차를 위한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세계의 R&D 작업을 통합했다. 또한 Ford는 제조공정을 표준화했다. 두 지역에 대한 조달(sourcing)결정은 Ford of Europe이 조정하며 판매와 마케팅 책임은 분권화되었다. 마케팅 기능은 유럽 내의 여러 국가 각각에서 따로 하는데 이는 생산활동통합과 대조적이다. 이는 각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Mondeo도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여러 시장에 공급된다. 이러한 세계화 전략은 경쟁심화 및 국가간·지역간 수요자 기호의 수렴여부에 따라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의 소비자 기호가 다소 다르지만 급속히 수렴하고 있다.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유럽에는 아직도 상당하나 북미에는 미미하다. 하지만 증형차에서는 공통제품과 지역간의 통합생산에 대한 기회가 커지고 있다.

## 2. 輸出 및 雇傭效果의 變化

복합통합전략하에서는 각종 부가가치 활동이 다국적기업 시스템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활동과 통합되어 여러 시장에 재화를 공급한다. 어디에 특정활동을 입지시켜야 하는가는 기업시스템 전체의 성과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의 조직구조는 복잡하고 다방면의 연계를 가진다. 해외자회사가 모기업 또는 다른 해외자회사로 수출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국제분업이 기업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짐을 의미

한다.

기업내 무역량이 증가하고 기업내 무역의 방향, 성격, 지리적 분포가 기업전략이 복합화되어감에 따라 변한다. 기업내 무역은 기업내 생산통합과 지리적 분산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해외투자와 무역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독립전략하의 기업내 무역은 주로 모기업이 각각의 해외자회사로 장비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형태이다. 단순통합 전략에서는 해외자회사가 다국적기업 생산시스템의 부가가치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기업내 무역의 방향이 결정된다. 최종생산단계에 위치하면 기업내 무역은 주로 모기업 수출로, 부품이나 원재료의 공급자이면 모기업으로의 기업내 수입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실증연구가 대체로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해외투자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복합통합전략하에서는 지역적·세계적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한 효율성추구 목적의 해외투자가 중요해짐에 따라 특화 및 지리적 분산의 증대로 이어져 기업내 분업이 보다 중요해진다. 기업내 무역은 모기업과 해외자회사간의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해외자회사간의 무역으로 확대된다. 해외자회사의 제3국수출 등 해외자회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적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독립전략하에서는 해외투자가 직접적 고용대체효과를 갖지만, 중간재의 수출을 유발해 고용을 창출하기도 한다. 해외투자가 고관세에 연유되었다면, 해외투자를 안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국내고용을 감소시킨다. 서비스부문의 경우 해외투자는 투자국의 고용에 음(-)의 효과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해외자회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을 창출한다. 고용의 질에서는 모기업 직종구조의 대부분이 해외자회사에서 재생된다. 단, 최고의 부가가치 활동(R&D)은 보통 모기업에

잔존한다. 독립전략의 중요성은 아직도 있는데 무역장벽 우회 또는 서비스부문 해외투자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독립전략하에서는 시장추구 목적으로 해외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용의 입지가 주로 선진국 쪽이다. 한편 단순통합전략의 고용효과는 상이하다. 해외자회사 또는 하청업자를 통한 노동집약적 활동의 외부조달은 국내의 저부가 직종의 고용감소와 유치국의 저기술 고용의 상대적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국내의 고부가 직종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결국 고용효과는 외부조달에 의한 고용감소와 국제생산지원을 위한 고용창출의 순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단순통합전략은 상이한 국가간에 보완적인 직업체계(complementary hierarchy of occupations)를 유도한다. 즉, 국제노동분업이 국가의 입지적 우위에 따라 일어난다. 이 전략에 의해 경험적으로 고기술직은 모기업에 남고 저기술직은 해외자회사 근처로 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고임금과 기술의 적절한 결합은 고부가직종을 유치국에 위치하게 할 수도 있다. 단순통합전략하에서는 해외투자가 자원 또는 자산 추구형이기 때문에 고용의 입지에 개발도상국도 포함된다. 해외투자의 고용효과는 다국적기업내 생산의 국제통합정도가 커짐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다. 심층통합은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게 하여 기업의 고용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킨다. 이 전략은 기업의 총고용에 합리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기업시스템의 어느 곳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증가하는지는 유치국 대 투자국, 숙련 대 비숙련 노동자 기준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고용의 질 또는 입지에 관해서도 전통적 이분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고용의 입지는 창조적 자산(created asset)에 보다 탄력적이게 되고, 고용의 질이 이러한 자산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국에 최고의 부가가치 활동이 남게 된다는 가정은 점점 설득력이 없게 된다.

통합전략이 발전함에 따라 해외투자의 수출 및 고용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복합통합전략은 이제 시작되었으며 수출 및 고용효과의 크기와 방향도 불확실하다. 수출 및 고용효과는 이제 새로운 전략과 관련된 주요 경향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및 소비의 지리적 분리, 기업 부가가치 활동의 심층통합, 창조적 자산(노동의 질, 조직적 혁신, 다국적기업의 소유권우위 등)에의 의존 심화 등이 그것이다.

## V. 結 論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으며, 향후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일자리의 이전을 완화시켜 고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외투자를 제한할 유인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며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sup>9)</sup>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정부가 투자기회에 대한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이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직면하게 될 문제는 해외투자의 수출대체 및 역수입 유발, R&D의 해외이전, 국내생산활동의 구조변화 등이다. 해외투자의 발전단계가 진전되면서 해외투자의 수출효과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부품조달의 현지화,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등은 해외투자의 수출유발효과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역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유사업종의 국내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투자의 전략이 진보되면서 R&D의 해외이전도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의 R&D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면서 R&D의 제반여건이 가장 우수한 북미, 유럽 및 일본으로의 R&D이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지시장 특성을 R&D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해외 R&D의 증가를 유도할 요소로 판단된다. 고부가제품의 국

9) 정부는, 모든 해외투자의 외국환은행 신고제 채택, 해외투자 심의대상 축소, 자기자금조달의무 폐지, 해외투자공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안을 199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에 대한 현행 규제는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압축된다. 투자규모가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투자 중 본사의 규모에 비해 과대한 해외투자, 자본금이 잠식중에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본사가 출자한 자본금이 1/2 또는 1억달러 이상 잠식되었거나 해외투자를 한 이후 5년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증액투자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내생산, 저부가제품의 해외생산 증가라는 기존의 국제분업 형태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투자의 전략이 진보되면서 고부가제품의 해외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해외투자의 국내생산구조 고도화 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 기술 및 인력개발에 주력하여 해외투자를 통한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하다.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부 록]

A. 輸出과 海外投資의 關係에 대한 回歸分析

〈표 A-1〉 한국의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1994)

	절 편	계 수				$\bar{R}^2$	N
		GDP	GDPC	EC	FDI		
국가별	-1.65 (-2.35)	0.71 (7.67)	0.09 (0.82)	-0.56 (-3.41)	0.32 (5.58)	0.82	57
국가별·업종별	-1.62 (-2.30)	0.77 (9.83)	-0.01 (-0.14)	-0.58 (-3.74)	0.24 (4.60)	0.71	167

주: 1) 각 계수의 값은 탄력성의 추정치임. ( ) 안의 값은 t 값을 가리킴.

2) 국가별·업종별 분석에서는 업종별 dummy 변수를 사용하였음.

자료: GDP와 GDPC는 *World Development Report*, FDI는 『해외투자통계연보』를 사용하였음.

〈표 A-2〉 선진국·개발도상국별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1994)

	절 편	계 수				$\bar{R}^2$	N
		GDP	GDPC	EC	FDI		
선진국	-4.57 (-2.14)	0.88 (6.51)	0.66 (1.02)	-0.34 (-2.93)	0.04 (0.58)	0.89	50
개발도상국	-3.57 (-3.30)	0.81 (7.53)	0.21 (1.82)	—	0.38 (5.51)	0.71	117

주: 1) 각 계수의 값은 탄력성의 추정치임. ( ) 안의 값은 t 값을 가리킴.

2) 업종별 dummy 변수를 사용하였음.

자료: 〈표 4-1〉과 동일.

〈표 A-3〉 업종별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1994)

	절 편	계 수				$\bar{R}^2$	N
		GDP	GDPC	EC	FDI		
음식료품	-6.73 (-3.32)	1.41 (5.49)	-0.50 (-1.74)	-0.53 (-1.36)	-0.11 (-0.61)	0.74	16
섬유·의복	-1.66 (-1.53)	0.58 (5.66)	0.27 (1.77)	-0.45 (-1.36)	0.39 (4.57)	0.75	28
신발·가죽	-6.10 (-2.27)	0.73 (2.54)	0.44 (1.30)	0.001 (0.002)	0.60 (2.72)	0.57	19
가구·목재	-5.09 (-2.70)	1.60 (6.42)	-0.82 (-3.95)	—	-0.57 (-2.61)	0.87	8
종이·인쇄	-0.10 (-0.04)	0.92 (4.20)	-0.82 (-3.57)	-0.48 (-1.35)	-0.02 (-0.12)	0.67	9
석유·화학	-1.80 (-0.79)	0.71 (3.11)	-0.15 (-0.67)	-0.49 (-1.22)	0.38 (2.43)	0.48	21
비금속	-3.44 (-1.12)	-0.11 (-0.26)	0.51 (1.26)	-0.59 (-0.56)	1.42 (2.85)	0.59	13
1차금속	-6.21 (-1.89)	1.52 (3.60)	-0.71 (-1.61)	-1.27 (-1.97)	-0.13 (-0.52)	0.56	15
조립금속· 기계장비	-0.58 (-0.64)	0.67 (5.77)	0.15 (1.27)	-0.48 (-3.20)	0.16 (2.71)	0.80	38
노동집약업종	-2.91 (-2.0)	0.57 (4.10)	0.29 (1.49)	-0.13 (-0.34)	0.53 (4.69)	0.54	47
수출확대업종	-0.78 (-0.63)	0.65 (4.48)	-0.01 (-0.08)	-0.52 (-2.34)	0.27 (3.22)	0.48	74

주: 1) 노동집약업종은 섬유·의복, 신발·가죽을 가리킴.

2) 수출확대업종은 1986~89년에 비해 1990~94년에 수출비중이 증가한 업종으로서 1차금속, 석유·화학, 조립금속·기계장비를 포함함.

3) 각 계수의 값은 탄력성의 추정치임. ( ) 안의 값은 t값을 가리킴.

자료: 〈표 4-1〉과 동일.

〈표 A-4〉 업종별/선진국·개발도상국별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1994)

	절 편	계 수				$\bar{R}^2$	N
		GDP	GDPC	EC	FDI		
노동집약업종/선진국	-11.53 (-1.62)	1.02 (2.62)	1.52 (0.66)	-0.11 (-0.29)	0.15 (-0.88)	0.81	11
노동집약업종/개도국	-4.05 (-2.24)	0.51 (3.23)	0.52 (2.32)	—	0.70 (5.44)	0.58	36
수출확대업종/선진국	-7.72 (-1.65)	0.22 (0.66)	2.67 (1.99)	-0.12 (0.41)	0.29 (1.69)	0.43	24
수출확대업종/개도국	-3.37 (-1.98)	0.84 (4.68)	0.11 (0.68)	—	0.31 (3.31)	0.54	50

주, 자료 : 〈표 A-3〉과 동일.

〈표 A-5〉 한국의 수출변화와 해외투자변화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1992~94)

	절 편	계 수			$\bar{R}^2$	N
		$\Delta$ GDP	EX92	$\Delta$ FDI		
국가별	0.52 (2.37)	1.08 (3.64)	-0.06 (-2.26)	0.13 (2.21)	0.25	50
국가별·업종별	0.22 (0.80)	1.65 (3.70)	-0.03 (-0.88)	0.25 (3.73)	0.20	130

주, 자료 : 〈표 A-1〉과 동일.

〈표 A-6〉 선진국·개발도상국별 수출변화와 해외투자변화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1992~94)

	절 편	계 수			$\bar{R}^2$	N
		$\Delta$ GDP	EX92	$\Delta$ FDI		
선진국	-0.43 (-1.53)	1.66 (3.06)	0.05 (1.60)	-0.02 (-0.21)	0.59	39
개발도상국	0.12 (0.31)	1.09 (1.65)	-0.003 (-0.07)	0.26 (3.08)	0.11	91

주, 자료 : 〈표 A-2〉와 동일.

〈표 A-7〉 업종별 수출변화와 해외투자변화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1992~94)

	절 편	계 수			$\bar{R}^2$	N
		$\Delta$ GDP	EX92	$\Delta$ FDI		
섬유·의복	0.94 (2.57)	0.07 (0.10)	-0.10 (-2.25)	0.23 (2.54)	0.26	22
신발·가죽	0.19 (0.30)	-0.28 (-0.21)	-0.04 (-0.50)	0.94 (2.57)	0.33	14
조립금속· 기계장비	0.82 (1.70)	1.31 (1.97)	-0.09 (-1.63)	0.17 (2.60)	0.27	30
노동집약업종	0.66 (1.79)	0.46 (0.62)	-0.08 (-1.82)	0.35 (2.96)	0.21	36
수출확대업종	-0.19 (-0.57)	1.16 (2.20)	0.02 (0.46)	0.21 (3.33)	0.19	57

주, 자료 : 〈표 A-3〉과 동일.

〈표 A-8〉 업종별/선진국·개발도상국별 수출변화와 해외투자 변화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1992~94)

	절 편	계 수			$\bar{R}^2$	N
		$\Delta$ GDP	EX92	$\Delta$ FDI		
노동집약업종/선진국	-1.76 (-3.40)	1.15 (0.54)	0.17 (2.89)	0.86 (3.12)	0.66	7
노동집약업종/개도국	0.68 (2.06)	-0.78 (-1.14)	-0.06 (-1.41)	0.27 (2.74)	0.24	29
수출확대업종/선진국	-0.75 (-1.61)	-1.80 (2.05)	0.09 (1.50)	-0.03 (-0.34)	0.23	22
수출확대업종/개도국	-0.25 (-0.55)	0.10 (0.12)	0.04 (0.73)	0.27 (3.37)	0.28	35

주, 자료 : 〈표 A-3〉과 동일.

## B. 日本의 事例

1980년대 후반의 엔고를 계기로 급증했던 해외투자가 1989년도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1993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투자 증가의 상당부분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이며, 특히 1992년도 이후 중국에 대한 투자증가가 두드러졌다. 일본의 해외생산은 아직 미국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 산업공동화와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 저하와 역수입의 증가로 요약된다. 이외에도 고부가제품의 해외생산과 R&D의 해외이전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1. 産業空洞化 關聯 問題

#### 가. 海外投資의 增加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85~89년의 엔고기에 대폭 증가하여 1989년도에는 675억달러까지(제조업 163억달러) 증가하였고, 이후 3년간은 버블의 붕괴로 감소하다가 1993년도에 엔고가 가속화되어 증가세로 반전했다. 1980년대 후반의 엔화강세를 계기로 저부가제품의 생산이 이전되었고, 최근의 엔화강세로 고부가제품의 생산도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저부가제품의 생산은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전되고 있다. <표 B-1>에 의하면 일본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1982년의 3.2% 수준에서 1993년에 7.4%로

〈표 B-1〉 일본과 미국의 해외생산비율<sup>1)</sup>

	일 본				미 국			
	1982	1989	1993	2000	1977	1982	1989	1993
화 학	3.1	3.8	7.0	6.7	36.1	39.5	41.7	45.4
일반기계	4.0	3.8	5.8	11.8	27.4	24.9	44.8	41.0
전기기계	8.9	11.0	12.6	17.3	29.1	24.8	33.3	25.5
수송기계	6.1	14.3	17.2	28.3	35.6	43.1	45.4	43.4
제 조 업	3.2	5.7	7.4	12.3	18.4	18.3	23.7	24.5

주 : 1) 해외현지법인 매출액/국내 매출액  
 자료 : 野村總合研究所.

증가했고, 2000년에는 12.3%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북미와 유럽에 대한 해외투자는 부진한 반면 저임금지역인 중국과 동남아에 대한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던 해외거점의 경영방식을 전환하여, 현지에 부품기업이 진출하여 인접국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부품과 완제품의 역수입을 확대해가고 있다.

#### 나. 製造業의 比重 減少

일본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은 제1차 오일쇼크 후에 낮아진 후, 1975년 이후 28~30%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불황의 영향으로 1992년에는 27.1%로 낮아졌고, 엔고였던 1993년에는 25.5%, 1994년에는 24.5%로 낮아졌다. 불황으로 인한 수요부족 및 엔고를 배경으로 해외생산을 강화한 것이 요인으로 지적된다. 부가가치 비중의 감소와 동시에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취업자수의 구성비도 낮아졌다. 제조업취업자수는 1991년의 1,602만명에서 1994년에는 1,535만명으로 3년간 67만명이 감소했다.



#### 다. 海外製品에 의한 國內製品 代替

가전은 엔고 등 비용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해 생산거점이동이 활발하다. 텔레비전과 VTR도 1990년대에 들어 급속히 국내생산이 축소되어 수입점유율이 높아졌다. 기타 가전제품도 해외제품에 의한 국내제품의 대체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비중이 1992년도 이래 급속히 증가하여, 1995년도에는 15%에 달했다. 수입품의 가격도 내외가격차가 이미 존재하는데다가 엔고가 더하여 더욱 낮아지게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엔고국면에서는 하청기업 보호와 수입품 품질, 납기 불안정성 때문에 수입에 신중하였던 대기업도 수입원재료·부품의 적극적 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입품의 국산품대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이전으로 일본의 산업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여러 선진국이 직면했던 문제로 구미에 비하면 그 정도가 아직 경미하다.

#### 라. 高附加製品의 海外生産

기계센터, 절단용선반, 레이저가공기계 등의 공작기계는 일본이 압도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로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므로 현지생산이 어려워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동아시아에서의 공작기계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 마. R&D의 海外移轉

해외투자의 증가가 기업의 기술력 및 연구개발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일본기업은 이제까지 R&D에 대해서는 국내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최근에 해외에

서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연구개발은 현지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북미 및 유럽에서는 선진기술의 개발을, 아시아에서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R&D의 점차적 해외이전이 국내 R&D의 억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인해 국내에 남아 있는 연구개발현장과의 제휴가 희박해져 국내 연구개발력의 저하를 우려하는 견해도 높아지고 있다.

#### 바. 部品の 現地調達 擴大

해외생산의 증가에 따라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의 수출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자본재의 수출은 증가추세에 있다. 자본재 중에서도 기계류 부품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동아시아에 생산거점을 확보한 일본기업이 일본으로부터 부품조달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높다. IC를 비롯한 전기전자부품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자동차부품 등 수송기계부품은 현지조달률이 높아져 수출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 2. 日本의 對應

일본경제의 수출의존성 때문에 오일쇼크와 엔고 같은 외생적 충격이 구조변화를 촉진하여, OECD국가의 경우 고기술 산업의 고용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일본은 1980~93년 평균 2.4% 증가했다. 일본기업은 제품차별화를 통한 수출가격의 인상과 고부가제품의 수출확대에 주력하는 동시에, 위험부담의 증대와 수익성의 저하로 고전하는 분야에서는 해외투자보다 OEM 조달, 생산위탁, 판매제휴, 공동개발, 기술협약 등의 전략적 제휴도 확대하고 있다.

수입증가로 국산품이 받는 영향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입제품의 일본내 침투는 (일본)국산품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다. 섬유류는 수입품의 국산품대체가 명확히 나타나고 자동차도 일부 품목에서 대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기기기, 화학, 일반기계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수입증가와 동시에 일본국 내생산도 상승하여 국내와 해외간의 수평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산업은 반도체 등의 주요부품을 중심으로 한 고기술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가전과 컴퓨터조립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다. 노동집약적인 생산공정과 단순기술은 순차적으로 해외에 이전하고, 저부가가치소재는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일본국내에는 신기술과 독자기술에 특화된 생산을 신장시키고 있다.

결국에는 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등의 핵심부문이 국내에 남지 않고 공동화가 진전되리라는 우려가 있지만, 신제품개발 및 최첨단기술은 생산현장과 기술개발이 하나가 되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얻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의 생산여건이 고기술제품 생산에 적합하다면 제품개발 및 연구부문 등의 핵심부문이 국내에 남을 것이고,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이 진척되어도 고부가가치제품 및 신제품개발을 추구하는 한 일본의 국내생산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지만,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고기술 산업의 경쟁력은 현재 최고수준이다. 자동차, 전자의 경우 수출이 줄고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여 무역수지흑자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기기(가전제품 제외)와 일반기계 등 자본재부문은 큰 폭의 수출초과를 나타내서 1995년도 자본재 무역흑자는 2,042억달러에 달했다. 수출의 주역이었던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비내구소비재는 1970년대 전반에 수입제품으로 대체되었고, 1980년대 후반

부터는 자본재가 수출의 주역으로 변했다. 따라서 가전제품과 자동차만을 가지고 일본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일본의 수출주력품은 이미 자동차가 아니고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기술 제품인 것이다.

▷ 參考文獻 ◁

- 김승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구조변화와 요인분석」, 『KDI 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97.
- 김시중, 『해외직접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4.
- 한국개발연구원, 「해외직접투자의 요인·효과 및 정책방향」, mimeo, 1996.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호.
- Andersson, 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mployment in Sweden,” *Industrial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Working Paper No. 418, 1994.
- Belderbos, R., “Large Multinational Enterprises Based in a Small Economy : Effects on Domestic Investment,”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28, 1992, pp. 543~557.
- Bergsten, C., T. Horst, and T. Moran, *American Multinationals and American Interest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8.
- Blomstrom, M., “Competitiveness of Firms and Countries,” in J. Dunning, B. Kogut, and M. Blomstrom, *Globalization of Firms and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Lund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and A. Kokko, "Home Country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Evidence from Sweden," NBER Working Paper No. 4639, 1994.
- Blomstrom, M., R. Lipsey, and K. Kulchycky, "U.S. and Swedish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in R. Balwin (ed.), *Trade Policy Issues and Empirical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Dunning, J.,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Global Economy*, Addison-Wesley, 1993.
- Frank, R. and R. Freeman,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 Hawkins, R., *Job Displacement and the Multinational Firm : A Methodological Review*, Center for Multinational Studies, 1972.
- \_\_\_\_\_ and M. Jedel, "US Jobs and Foreign Investment," in D. Kujawa(ed.), *International Labor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New York : Praeger, 1975.
- Jordan, G. and J. Vahlne, *Domestic Employment Effects of Direct Investment Abroad by Two Swedish Multinationals*, Geneva, ILO, 1981.
- Koshiro, K., "How Overseas Investment Affects Employment at Home?" *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Bulletin*, No. 417, 1982.
- Kujawa, D., "Employment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LO Working Paper No. 12, ILO, 1980.
- Ladenson, M., "A Dynamic Balance Sheet Approach to

- American Direct Foreign Investment,”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13, 1972, pp. 531~543.
- Lipsey, R. and M. Weiss,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3, 1981, pp. 488~494.
- \_\_\_\_\_,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of Individual Firm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6, 1984, pp. 304~308.
- Magee, S., “Jobs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 The Home Country Perspective,” in R. Hawkins(ed.), *The Economic Effect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JAI Press, 1979.
- McClain, D., “Foreign Investment in United States Manufacturing and the Theory of Direct Investment,” Ph.D. Dissertation, MIT, 1974.
- Pearce R.D., “Overseas Production and Exporting Performance : Some Further Investigations,” University of Reading Discussion Pape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Business Studies, 135, 1990.
- Rutenberg S., *Needed! a Constructive Foreign Trade Policy*, Washington, D. C. : AFL - C10, 1971.
- Severn, A., “Investment and Financial Behavior of American Direct Investors in Manufacturing,” in F. Machlup, W. Salant, and L. Tarshis(eds.), *The International Mobility and Movement of Capital*, NBER, 1972.
- Shepherd D., et al., *British Manufacturing Investment Overseas*, London and New York : Methuen. 1985.

Stevens, G., "Fixed Investment Expenditures of Foreign Manufacturing Affiliates of U.S. Firms," *Yale Economic Essays*, Vol. 8, 1969.

\_\_\_\_\_ and R. Lipsey,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Vol.11, 1992, pp. 40~62.

Stobaugh, R., et al., *U.S.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U.S. Economy*, Bost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972.

\_\_\_\_\_, *U.S. Nine Investments Abroad and Their Impact at Hom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76.

Stopford, J., "Employment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United Kingdom," ILO Working Paper No. 5, ILO, 1979.

Swedenborg, B., *The Multinational Operations of Swedish Firms*, Stockholm: Almqvist & Wicksell International, 1979.

United Nations, *World Investment Report*, 1994, 1996.

Van den Bulcke, D. and E. Halsberghe, "Employment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 A Belgian Case Study," ILO Working Paper No. 1, ILO, 1979.



■ 論 評

宋 毅 英

(동국대 교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국내의 수출과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저자는 통계분석 및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부정적인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의 수출, 고용은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산업공동화를 우려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적 조치는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경영학적인 문헌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내에서, 특히 무역이론에서 그 중요성을 수용하려는 노력은 아주 미흡하다. 해외직접투자가 아주 활발한 미국의 경우 수출과 수입의 반 이상이 다국적기업간의 내부거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을 것이라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학자들은 무역패턴을 다국적기업의 존재를 무시한 전통적인 모형의 틀에서 이해하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는 아직 한국경제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잠재적인 중요성 때문에 항상 환영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동시에 체계적인 이론적 틀이 부재하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논문도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엄밀한 분석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몇 가지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추정, 외국의 사례, 개념적

인 추론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논문의 성격상 분석적인 비판보다는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논평자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이에 필요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저자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무역이론을 전공하는 경제학도의 입장에서 저자의 접근방법에 대한 한계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킴으로써 논평을 대신하려고 한다.

II장에서 저자는 90년대 초의 한국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陽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업종별로 보나 국가별로 보나 모두 성립하며, 해당국의 시장규모를 컨트롤한 회귀분석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성립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의 양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수출은 이에 대해 내생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수출을 증가시켰느냐는 질문은 이해하기 힘들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기업의 직접투자와 수출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하여 내생적으로 동시에 결정되는데, 이러한 변수들의 대상국별 차이가 직접투자와 수출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느냐, 아니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직접투자와 수출간에 존재하는 陽의 상관관계는 90년대초 한국의 경우 전자의 경향이 더 컸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해석은 곤란한 것 같다. 저자는 물론 누차에 걸쳐서 회귀분석의 결과를 직접투자의 증가가 수출을 증가시켰다고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II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펴고 있다. 대상국별 경제여건의 차이가 개방도에만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상당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만일 정부가 직접투자에 관한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이것이 수출을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별개라는 것이다. 어떤 경제변수의 국가별 차이가 직접투자와 수출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수출을 감소시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커피와 홍차의 가계별 소비가 陽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독립적인 커피 가격의 증가가 홍차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Helpman-Markusen의 직접투자모형을 통해서 두 변수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모기업은 자국과 요소부존량의 차이가 더 많은 나라와 무역 및 현지법인의 생산을 더 하게 된다. 또한 Ethier는 기업간의 정보의 흐름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와는 반대로 모기업은 자국과 비슷한 나라에서 무역과 현지법인의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 중 어느 모형이 사실일지라도, 정부가 해외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올렸을 때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는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 기업은 해외법인의 현지 판매와 수출의 한계 혜택이 같은 점에서 둘의 최적혼합을 정할 것이고 전자의 한계비용이 증가할 때 후자로 방향전환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찰된 陽의 상관관계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한국 기업이 동구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동구에 직접 투자를 하지만 규모의 경제 때문에 여건이 가장 좋은 폴란드에만 대규모 생산기지를 건설한다고 하자. 또한 이때 한국에서 폴란드로의 중간재 수출은 동시에 증가한다고 하자. 하지만 폴란드 생산기지에서의 생산은 한국에서 동구로 가는 수출의 많은 부분

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별 수출과 직접투자는 陽의 상관 관계를 가질 것이지만 직접투자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한국의 총수출은 감소할 수 있다. 이 예가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논문의 방법에 의한 대답은 상당히 유보적이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직접투자와 선진국의 직접투자간의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는 점이다.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선진국의 직접투자가 대부분 對선진국 투자인 것과는 달리 한국의 직접투자는 對후진국 직접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90년대 초에 일어난 한국의 직접투자는 對후진국 직접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90년대 초에 일어난 한국의 무역구조 변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85년에는 한국의 對美수출이 거의 총수출의 40%에 달했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20%에 미달했으나, 95년에는 양지역의 상대적인 비중이 뒤바뀌고 말았다. 최근의 직접투자 붐은 한국기업들이 똑같은 상품과 기술을 선진국의 low end에서 후진국의 middle 혹은 high end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FDI의 Outflow 증가는 소유권 우위의 독립적인 증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서의 실패와 새로운 교역국의 등장 of 的 복합적 산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표 5>의 분석을 80년대 후반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해볼 것을 추진하고 싶다. 수출과 직접투자의 陽의 상관 관계가 후진국의 경우 더 두드러졌다는 결론이 80년대 후반에 대해서도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과는 달리 수출할 자본제도 별로 없고, R&D 기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자극 효과는 일부 중간재에서만 기대할 수 있고, 결국 후진국으로의 생산기지 이동은 한국의 최종재 수출과 자본재 수입의 동시 감소를 동반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R&D 투자도 국내에 잔류하기보다는 선진국의 기업인수를 통해서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근거가 있다면, 최종재의 생산과 자본재 생산의 분할, 생산과 R&D의 분할이라는 선진국적인 패턴이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인지, 독일과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외직접투자의 고용감소효과에 관한 우려는 임금이 경직적이지 않는 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임금이 신축적이라면, 장기적으로 고용은 수출과 국내투자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총노동공급에서 자연실업률을 조종한 값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투자의 확대는 특정 산업에서의 고용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임금이 단기적으로 경직적이라면 총고용의 감소를 동반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투자의 장기적인 효과에만 주목한다면 우려의 대상은 임금의 직종별 구조의 변화일 뿐이다. 이 점에 대한 노동측의 오해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장개방과 직접투자의 확대에 큰 정치적 걸림돌이 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이 점에 대한 논의도 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중요한 일면으로서 포함되었으면 좋을 듯하다.

● 참고문헌

Helpman, 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rade Structur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2, 1985, pp. 443~458.  
 Markusen, J. R., "Multinational Corporations, Multi-plant Econo-

mics, and the Gains from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6, 1984, pp. 205~226.

Ethier, W. J., “The Multinational Fir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1, 1986, pp. 805~834.

## 林 源 赫

(本院 專門研究員)

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실증적 접근을 통해 産業空洞化論 등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경영의 세계화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미국, 스웨덴, 일본 등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고용과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일반의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세계화 시대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도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투자,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없을 경우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산업공동화론 등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일반의 우려는 해외직접투자를 막으면 그 돈이 그대로 국내에 투자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잘못된 가정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은 사실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를 유발한다고 가정해도, 해외직접투자는 病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뿐인데 국내 경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해외투자를 막는다고 국내투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II장의 서두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일반의 우려가 대부분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검증하고자 하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를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외직접투자의 代案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보완성과 대체성의 문제가 원자재·중간재의 경우와 최종재의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좀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도 인지하는 바와 같이 미시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없이 거시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따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아랍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유전에 투자하여 원유를 그곳에서 도입하기 시작할 경우, 해외투자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를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또 수출대상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최종품을 현지에서 조립생산해야 하고 부품도 일정 부분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을 경우, 정책의 변화에 해당하는 변수를 생략한다면 마치 해외투자가 수출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 듯한 결과를 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해외투자는 더 줄어들었을 수출을 덜 줄어든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수출 감소를 촉발한 것이 아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생략변수의 문제까지 감안하여 신중한 계량분석을 시도했으나, 저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계량분석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계량분석보다는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다룬 논문의 IV장이 오히려 더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합통합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Ford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산업공동화론의 한 축을 이루는 소위 '탈출론'의 초점은 고부가가치 업종과 생산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국가로 투자가 나가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세·교육제도를 포함하여 경제환경 전반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는 저자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일련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인 저자가 앞으로 진정으로 어렵고 중요한 연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